

## WEBVTT

00:00:10.160 --> 00:00:11.303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403 --> 00:00:12.452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552 --> 00:00:14.860

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,  
소설을 만날 텐데요.

00:00:14.960 --> 00:00:17.667

소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 
제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.

00:00:17.767 --> 00:00:20.487

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상력이  
부족하다, 이렇게 얘기하죠.

00:00:20.587 --> 00:00:24.303

만약에 여러분이 소설의 그  
장면을 TV 화면에서

00:00:24.403 --> 00:00:26.272

드라마로 본다고 한번  
생각해 보세요.

00:00:26.372 --> 00:00:29.701

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,  
딱 등장인물이 나오자마자

00:00:29.801 --> 00:00:32.494

저놈 나쁜 놈이다 알  
거예요, 여러분.

00:00:32.594 --> 00:00:35.834

왜? 생김새만 봐도 좋은 사람,  
안 좋은 사람 알 수 있죠.

00:00:35.934 --> 00:00:39.349

그다음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 
같고, 그다음에 옷차림만 봐도

00:00:39.449 --> 00:00:41.347

좋은 사람, 안 좋은  
사람 알 수 있죠.

00:00:41.447 --> 00:00:42.470

이해되겠어요?

00:00:42.570 --> 00:00:44.230

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 
바로 뭐냐면 시각적으로

00:00:44.330 --> 00:00:46.293

우리가 익숙해져  
있으니까 글로 나오면

00:00:46.393 --> 00:00:48.433

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.

00:00:48.533 --> 00:00:51.621

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하셔야  
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

00:00:51.721 --> 00:00:54.122

메모하는 습관을 좀  
길러주시면 좋은데.

00:00:54.222 --> 00:00:57.013

등장인물의 성격이라든가  
심리 나타내는 것 있으면

00:00:57.113 --> 00:00:59.801

항상 메모하시고 등장인물의  
관계나 이런 것들도

00:00:59.901 --> 00:01:02.006

메모를 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
00:01:02.106 --> 00:01:05.335

소설 읽을 때는 저랑 같이  
읽어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인데

00:01:05.435 --> 00:01:07.134

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잡아냈구나.

00:01:07.234 --> 00:01:10.057

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 
공부하시는 게 좋고요.

00:01:10.157 --> 00:01:12.809

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 
계속 질문할 겁니다.

00:01:12.909 --> 00:01:15.162

이게 왜 이럴까요, 왜  
이런 행동을 했을까?

00:01:15.262 --> 00:01:16.900

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거든요.

00:01:17.000 --> 00:01:20.718

기본 개념부터 볼 텐데, 소설에서  
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죠.

00:01:20.818 --> 00:01:23.737

인물이고, 그다음에 인물 사이에  
벌어지는 갈등이 중요한데.

00:01:23.837 --> 00:01:26.028

기본 개념부터 먼저 한번  
가볼게요, 여러분.

00:01:26.128 --> 00:01:27.170

첫 번째 보겠습니다.

00:01:27.270 --> 00:01:30.961

인물을 보면 전형적 인물과  
개성적 인물이예요.

00:01:31.061 --> 00:01:34.716  
전형적 인물은 미리 규정된 범주의  
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

00:01:34.816 --> 00:01:38.689  
어떤 신분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 
인물이 바로 전형적 인물이겠죠.

00:01:38.789 --> 00:01:43.045  
예를 들어서 신데렐라라든가  
아니면 백설공주라든가

00:01:43.145 --> 00:01:46.364  
이런 애들은 공주의 전형적인  
모습을 다 갖고 있죠.

00:01:46.464 --> 00:01:50.401  
착하고 예쁘고 또 세상 물정 모르고  
순진하고, 이런 것들이라면

00:01:50.501 --> 00:01:55.058  
개성적 인물은 쉽게 말하면 작가가  
창조해낸 독특한 인물이에요.

00:01:55.158 --> 00:01:57.484  
뭐가 있냐면 피오나  
공주 같은 경우 있죠.

00:01:57.584 --> 00:02:01.186  
사회적, 집단적, 보편적 성격과  
대립하거나 예외적인 기질을

00:02:01.286 --> 00:02:03.269  
갖춘 인물이 바로  
개성적 인물입니다.

00:02:03.369 --> 00:02:05.387  
고전 소설은 전형적 인물이에요.

00:02:05.487 --> 00:02:08.376  
고전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  
긍정적인 애는 끝까지 긍정적이고,

00:02:08.476 --> 00:02:10.702  
부정적인 애는 끝까지 부정적이죠.

00:02:10.802 --> 00:02:12.919  
물론 중간에 개과천선하는  
인물들도 있습니다.

00:02:13.019 --> 00:02:17.045  
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,  
그다음에 웅고집도 마찬가지였고,

00:02:17.145 --> 00:02:20.530  
이춘풍전 같은 경우도 역시  
개과천선하는 인물들이지만,

00:02:20.630 --> 00:02:24.754  
대부분 남자들은 전부 다 착하고,

멋지고, 잘생기고, 능력있고,

00:02:24.854 --> 00:02:27.095

집안 좋고, 공부 잘하고  
이런 것들이고.

00:02:27.195 --> 00:02:32.498

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쁘고, 집안  
좋고, 물론 가난하기도 하겠지만,

00:02:32.598 --> 00:02:37.673

성격 좋고, 그다음에 현모양처의  
전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.

00:02:37.773 --> 00:02:40.865

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 
바뀌지 않는 인물이고,

00:02:40.965 --> 00:02:42.970

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바뀝니다.

00:02:43.070 --> 00:02:46.326

주요 인물하고 부수적 인물이  
있는데, 주요 인물 이거 네 개를

00:02:46.426 --> 00:02:47.713

같이 한번 볼게요.

00:02:47.813 --> 00:02:51.470

주요 인물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 
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에요.

00:02:51.570 --> 00:02:55.633

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변사또가  
바로 주요 인물이고,

00:02:55.733 --> 00:02:57.341

부수적 인물은 향단이,  
이런 애들이 있죠.

00:02:57.441 --> 00:03:01.424

향단이, 그다음에 방자  
같은 애들 있죠?

00:03:01.524 --> 00:03:03.146

이런 애들이 부수적 인물이고.

00:03:03.246 --> 00:03:04.583

주동 인물은 주인공입니다.

00:03:04.683 --> 00:03:10.268

즉, 다시 말하면 춘향이하고  
이도령이 중심 인물, 주동 인물이고

00:03:10.368 --> 00:03:12.743

반동 인물은 바로 변사또가 되겠죠.

00:03:12.843 --> 00:03:15.287

인물 성격 제시 방법은  
직접적 말하기.

00:03:15.387 --> 00:03:18.972  
직접적 제시하고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  
아주아주 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03:19.072 --> 00:03:21.907  
직접적 말하기는 서술자가  
인물의 특색, 성격, 심리를

00:03:22.007 --> 00:03:23.412  
직접 설명하는 방식이에요.

00:03:23.512 --> 00:03:25.488  
이거는 빨리 읽으셔도 됩니다.

00:03:25.588 --> 00:03:28.866  
왜? 성격이 직접 나오고 있기  
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

00:03:28.966 --> 00:03:30.274  
캐치가 가능하거든요.

00:03:30.374 --> 00:03:31.605  
그러니까 빨리 읽으셔도 돼요.

00:03:31.705 --> 00:03:33.839  
사건을 요약함으로써  
서술의 속도를 조절하고

00:03:33.939 --> 00:03:36.093  
인물에 대한 정보를  
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으나

00:03:36.193 --> 00:03:38.538  
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될  
수밖에 없겠죠.

00:03:38.638 --> 00:03:41.175  
등장인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 
생각할 필요 없거든요.

00:03:41.275 --> 00:03:43.159  
그 사람이 직접 얘기해주고  
있는 거니까.

00:03:43.259 --> 00:03:45.555  
간접적 제시라고 하면  
보여주기라고 하는 건데.

00:03:45.655 --> 00:03:49.170  
서술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인물의  
행동이나 대화, 외양, 묘사

00:03:49.270 --> 00:03:53.268  
또는 장면의 묘사 등을 통해서 인물의  
성격이나 심리, 사건의 전개를

00:03:53.368 --> 00:03:54.731  
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.

00:03:54.831 --> 00:03:56.803  
이게 여러분, 소설 읽을

때 제일 중요해요.

00:03:56.903 --> 00:03:59.984  
묘사된 부분이라든가 대화된 부분을  
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

00:04:00.084 --> 00:04:02.344  
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.

00:04:02.444 --> 00:04:05.438  
상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 
제일 중요한 장면이죠.

00:04:05.538 --> 00:04:08.773  
서술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 
특정 장면이나 이야기를 제시하는

00:04:08.873 --> 00:04:12.348  
방식이므로, 독자가 상상력을  
발휘하여 이야기의 공간에

00:04:12.448 --> 00:04:15.563  
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,  
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

00:04:15.663 --> 00:04:18.725  
바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 
겁니다, 아시겠죠?

00:04:18.825 --> 00:04:20.346  
내용을 한번 볼까요?

00:04:20.446 --> 00:04:24.007  
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 
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을 했어.

00:04:24.107 --> 00:04:27.371  
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 
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

00:04:27.471 --> 00:04:28.846  
한가운데에서 앉아서 하고 있어.

00:04:28.946 --> 00:04:30.299  
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.

00:04:30.399 --> 00:04:32.185  
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.

00:04:32.285 --> 00:04:36.424  
이게 뭐냐면 소년의 성격에 대해서  
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지만

00:04:36.524 --> 00:04:38.736  
소녀에게 비켜달라고  
말하지 못하고 있죠.

00:04:38.836 --> 00:04:40.910  
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는  
소년의 행동을 통해서

00:04:41.010 --> 00:04:43.721

소극적인 성격임을  
암시하고 있는 겁니다.

00:04:43.821 --> 00:04:46.595

그리고 둘이 서로 관심이  
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.

00:04:46.695 --> 00:04:49.514

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 
뭐냐면 갈등은 등장인물이

00:04:49.614 --> 00:04:51.551

심리적으로 겪는 의견  
대립이나 인물들 사이에서

00:04:51.651 --> 00:04:54.992

대립 및 충돌이 일어나며  
엮히는 것을 말합니다.

00:04:55.092 --> 00:04:56.535

그게 바로 갈등이죠.

00:04:56.635 --> 00:04:58.846

사건 전개에 개연성과  
필연성을 부여한다.

00:04:58.946 --> 00:05:02.783

개연성, 필연성이라고 하는  
것은 개연성은 그럴할 만하다.

00:05:02.883 --> 00:05:08.199

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 
생각하는 게 바로 개연성이예요.

00:05:08.299 --> 00:05:10.945

필연성도 마찬가지로  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5:11.045 --> 00:05:14.588

우선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  
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.

00:05:14.688 --> 00:05:17.465

외적 갈등은 한 인물의  
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,

00:05:17.565 --> 00:05:19.363

도덕적 양심, 비양심.

00:05:19.463 --> 00:05:22.868

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과 미움의  
감정 등 심리적 대립이나

00:05:22.968 --> 00:05:25.660

모순을 바로 내적  
갈등이라고 얘기하죠.

00:05:25.760 --> 00:05:30.476

그다음에 외적 갈등이라고 하면,  
내적 갈등 먼저 볼까요?

00:05:30.576 --> 00:05:35.376

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 
밤이나 낮이나 재워야 했나?

00:05:35.476 --> 00:05:37.518

이게 유명한 작품인데요.

00:05:37.618 --> 00:05:39.650

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이에요.

00:05:39.750 --> 00:05:41.583

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.

00:05:41.683 --> 00:05:44.733

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의  
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?

00:05:44.833 --> 00:05:46.742

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.

00:05:46.842 --> 00:05:49.414

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 
없을 것이니라고 해서

00:05:49.514 --> 00:05:51.356

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야.

00:05:51.456 --> 00:05:54.444

매춘부인 아내에게 기생해서  
사는 어느 무기력한 지식인의

00:05:54.544 --> 00:05:56.411

암울한 내면이 묘사된 거고요.

00:05:56.511 --> 00:05:59.197

아내가 먹인 것이  
아달린이라고 의심하는 마음.

00:05:59.297 --> 00:06:01.443

아달린이라고 하는 게 수면제거든요.

00:06:01.543 --> 00:06:04.961

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마음 사이의  
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는 거죠.

00:06:05.061 --> 00:06:07.399

그다음에 외적 갈등을 볼까요?

00:06:07.499 --> 00:06:10.102

외적 갈등은 개인과 외부  
상황과의 갈등으로 인물과 인물,

00:06:10.202 --> 00:06:14.556

인물과 사회, 인물과 자연, 인물과  
운명의 갈등 등이 나타납니다.

00:06:14.656 --> 00:06:17.671

인물과 인물은 소설에서  
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



00:06:17.771 --> 00:06:19.262

인물과 인물의 갈등이겠쥬.

00:06:19.362 --> 00:06:22.967

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인물이  
어떤 것을 펼치려고 하는데

00:06:23.067 --> 00:06:25.773

사회 구조라든가 제도 때문에  
이루어질 수 없을 때

00:06:25.873 --> 00:06:28.687

그걸 바로 인물과 사회의  
갈등이라고 합니다.

00:06:28.787 --> 00:06:30.673

인물과 자연의 갈등인데요.

00:06:30.773 --> 00:06:33.815

인물이 그들의 행동에 제약을  
주는 자연 재해 때문에

00:06:33.915 --> 00:06:35.719

갈등을 하게 되는 건데.

00:06:35.819 --> 00:06:38.318

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 
모래톱 이야기라고 하면

00:06:38.418 --> 00:06:39.736

홍수가 나거든요.

00:06:39.836 --> 00:06:43.146

그런 것들도 역시 자연 사이의  
갈등이라고 할 수 있쥬.

00:06:43.246 --> 00:06:46.236

한 개인이 그가 맞닥뜨린 운명적  
상황과 대결하는 과정에서

00:06:46.336 --> 00:06:49.294

나타나는 갈등이 바로 인물과  
운명의 갈등입니다.

00:06:49.394 --> 00:06:52.565

대표적인 작품이 김동리의  
역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

00:06:52.665 --> 00:06:55.644

성기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,  
역마살을 타고 났쥬.

00:06:55.744 --> 00:06:58.532

역마살을 타고 가는 것을 없애기  
위해서 엄마가 노력하지만,

00:06:58.632 --> 00:07:01.877

결국은 이제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 
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.

00:07:01.977 --> 00:07:05.080

그게 바로 인물과 운명 사이의  
갈등이 나타나는 거죠.

00:07:05.180 --> 00:07:07.129  
가볼까요?

00:07:07.229 --> 00:07:09.888  
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 
그럼 어떻게 앨냥지유?

00:07:09.988 --> 00:07:14.386  
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 
꿇배기 하나가 적다.

00:07:14.486 --> 00:07:16.589  
장인님은 이 말을  
듣고 껄껄 웃드니.

00:07:16.689 --> 00:07:17.959  
그러나 암만 해두 돌 씹은 상이다.

00:07:18.059 --> 00:07:20.037  
장인과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.

00:07:20.137 --> 00:07:23.869  
코를 푸는 척하고 나를 은근히  
골릴라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

00:07:23.969 --> 00:07:25.087  
퍽 치는 것이다.

00:07:25.187 --> 00:07:26.218  
해학적인 싸움이죠.

00:07:26.318 --> 00:07:28.002  
흥 하면서 퍽 치고 이러는 거예요.

00:07:28.102 --> 00:07:30.438  
그다음, 더럽다, 나도  
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

00:07:30.538 --> 00:07:33.182  
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 
궁둥이를 짹 때밀었다.

00:07:33.282 --> 00:07:34.805  
해학적인 갈등이 있죠.

00:07:34.905 --> 00:07:36.691  
나와 장인의 해학적인  
갈등을 드러낸 부분이고.

00:07:36.791 --> 00:07:41.001  
나와 장인은 나와 점순이와의 혼인  
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있어요.

00:07:41.101 --> 00:07:42.549  
결혼시켜주세요, 싫어.

00:07:42.649 --> 00:07:45.614  
키가 자라야 혼인시켜주지,

이런 갈등이 나타나 있고요.

00:07:45.714 --> 00:07:47.711

두 인물의 유치하고  
우스꽝스러운 몸싸움을 통해

00:07:47.811 --> 00:07:51.394

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 
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07:51.494 --> 00:07:52.648

아시겠죠?

00:07:52.748 --> 00:07:55.278

여러분, 문제로 개념 확인  
한번 넘어가겠습니다.

00:07:55.378 --> 00:07:58.588

1번,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 
등을 제시해 독자가 인물의 성격이나

00:07:58.688 --> 00:08:03.185

심리를 짐작하게 하는 제시  
방식을 뭐라고 하나면

00:08:03.285 --> 00:08:04.933

간접적 제시라고 하거든요.

00:08:05.033 --> 00:08:08.002

그런데 간접적 제시는 서술의  
속도가 빠르지 않아요.

00:08:08.102 --> 00:08:09.568

직접적 제시가 빠르죠.

00:08:09.668 --> 00:08:12.343

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거니까  
애가 훨씬 더 빠르고.

00:08:12.443 --> 00:08:15.768

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도  
역시 직접적 제시 방법이에요.

00:08:15.868 --> 00:08:17.329

그러니까 X가 되죠.

00:08:17.429 --> 00:08:20.519

등장인물이 어떤 대상에 대한  
심리적 대립 때문에 마음속에서

00:08:20.619 --> 00:08:23.798

일어나는 갈등을 바로 뭐냐면  
하냐면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.

00:08:23.898 --> 00:08:26.597

마음 속에서 뭔가 괴로운  
거잖아요, 내적 갈등이죠.

00:08:26.697 --> 00:08:31.180

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 
하냐면 문학은 사람이다,

00:08:31.280 --> 00:08:34.890

이런 얘기를 하는데 등장인물이  
엄청나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08:34.990 --> 00:08:37.919

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 
게 엄청나게 중요해요.

00:08:38.019 --> 00:08:40.979

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 
현대 소설 읽을 때 하고

00:08:41.079 --> 00:08:43.906

고전 소설 읽을 때 제가  
좀 설명을 드릴 건데.

00:08:44.006 --> 00:08:47.795

현대 소설에서는 여러분, 제가 이  
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

00:08:47.895 --> 00:08:48.815

보세요.

00:08:48.915 --> 00:08:53.119

현대 소설의 주인공은 문제적  
인물이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08:53.219 --> 00:08:54.365

문제적 인물.

00:08:54.465 --> 00:08:56.867

즉, 다시 말하면 어떤  
문제 상황이 있거든요.

00:08:56.967 --> 00:08:58.657

문제 상황에 있어.

00:08:58.757 --> 00:09:02.215

문제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이  
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09:02.315 --> 00:09:06.334

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문제  
상황, 문제적 인물이 될 수 있을까?

00:09:06.434 --> 00:09:07.926

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?

00:09:08.026 --> 00:09:09.224

지금 현재로는 될 수 없어요.

00:09:09.324 --> 00:09:14.455

그러나 소설의 주제가 입시해서  
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학생들.

00:09:14.555 --> 00:09:18.330

이게 바로 소설의 주제라면 여러분이  
소설의 주제가 될 수 있죠.

00:09:18.430 --> 00:09:19.918

주인공이 될 수는 있죠.

00:09:20.018 --> 00:09:26.187

문제 상황은 두 가지로 개인적  
상황하고 사회적 상황.

00:09:26.287 --> 00:09:27.974

이렇게 두 가지로  
나눌 수 있습니다.

00:09:28.074 --> 00:09:32.401

개인적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 
개인의 성격상의 문제예요.

00:09:32.501 --> 00:09:35.641

예를 들어서 너무 어리숙해.

00:09:35.741 --> 00:09:37.922

아까 뽀뽀이라는 작품  
봤지만 너무 어리숙해.

00:09:38.022 --> 00:09:40.526

그것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는 거고.

00:09:40.626 --> 00:09:42.567

그다음에 역사 의식이 없어요.

00:09:42.667 --> 00:09:45.084

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.

00:09:45.184 --> 00:09:48.528

그러면 꺼빼단 리의 이인국  
박사 이런 애들이

00:09:48.628 --> 00:09:50.145

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겠고.

00:09:50.245 --> 00:09:53.397

그다음에 또 뭐냐면 장인  
정신을 갖고 있어.

00:09:53.497 --> 00:09:56.646

그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인  
이유, 문제 상황이 돼서

00:09:56.746 --> 00:09:58.382

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.

00:09:58.482 --> 00:10:01.452

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  
상황이 더 중요합니다.

00:10:01.552 --> 00:10:03.227

이렇게 생각해 볼게요, 여러분.

00:10:03.327 --> 00:10:07.311

현대시하고 현대소설 중에 사회적  
상황을 잘 드러내는 게

00:10:07.411 --> 00:10:08.860

시일까요, 소설일까요?

00:10:08.960 --> 00:10:10.466

당연히 소설일 겁니다.

00:10:10.566 --> 00:10:14.178

소설은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적인  
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

00:10:14.278 --> 00:10:16.494

사회적인 상황이 잘 드러나죠.

00:10:16.594 --> 00:10:20.920

여러분이 현대소설을 읽기 좀  
어렵다면 어떤 게 어렵냐면

00:10:21.020 --> 00:10:24.573

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등장인물의  
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.

00:10:24.673 --> 00:10:27.246

그러면 이 사회적 상황이라고  
하면 바로 뭐냐면

00:10:27.346 --> 00:10:30.163

우리의 근현대사 속에  
나타나는 겁니다.

00:10:30.263 --> 00:10:33.059

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라고  
하는 게 있겠죠.

00:10:33.159 --> 00:10:36.612

일제 강점기 가난한 사람도 있겠고,  
무기력한 지식인도 있겠고,

00:10:36.712 --> 00:10:37.941

친일파도 있겠고.

00:10:38.041 --> 00:10:39.649

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됐어요.

00:10:39.749 --> 00:10:43.162

해방되면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 
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

00:10:43.262 --> 00:10:44.958

그다음에 전쟁을 겪었습니다.

00:10:45.058 --> 00:10:48.057

전쟁에 가난한 사람도 있겠고,  
전쟁 때문에 역시 국군과

00:10:48.157 --> 00:10:50.667

인민군 사이에서 피해를  
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.

00:10:50.767 --> 00:10:54.538

1960년대, 70년대 보면  
독재 정권의 시기도 있었겠고,

00:10:54.638 --> 00:10:56.288

산업화 시기도 있었겠고.

00:10:56.388 --> 00:10:59.193

1980년대로 보면 소시민들의  
일상적인 삶의 모습도 있겠고.

00:10:59.293 --> 00:11:02.980

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 
근현대사가 정말 복잡하잖아요.

00:11:03.080 --> 00:11:06.442

이 근현대사 속에서의 인물이기  
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

00:11:06.542 --> 00:11:08.476

이 인물이 어떤 성격을  
가지고 있고,

00:11:08.576 --> 00:11:11.017

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하시는  
게 가장 중요합니다.

00:11:11.117 --> 00:11:14.784

이게 바로 뭐냐면 현대소설을  
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.

00:11:14.884 --> 00:11:18.372

어떤 문제적 인물이 있는지를  
파악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심리를

00:11:18.472 --> 00:11:22.303

가질 수 있는지, 어떤  
의도로 이 대화를 하는지.

00:11:22.403 --> 00:11:26.294

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,  
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.

00:11:26.394 --> 00:11:29.096

소설 읽을 때 제가 제일  
안타까운 친구들은 뭐냐면

00:11:29.196 --> 00:11:33.031

시험 볼 때 신문지처럼  
보는 애들이 있어요.

00:11:33.131 --> 00:11:35.533

이런 애들이 있거든요.

00:11:35.633 --> 00:11:39.020

우리 신문 감상하는 거 아니잖아요.

00:11:39.120 --> 00:11:40.865

이 소설 감상하기  
위한 게 아니잖아요.

00:11:40.965 --> 00:11:44.171

읽어 보고 이게 뭔지 이렇게  
분석을 해봐야 되고, 파악해서

00:11:44.271 --> 00:11:47.569

문제를 푸는 거지만, 안타깝게도  
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

00:11:47.669 --> 00:11:51.368  
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 
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,

00:11:51.468 --> 00:11:54.962  
어떤 의도일까 이런 것들을 꼭  
고민하시면서 읽으시는 게

00:11:55.062 --> 00:11:56.745  
제일 중요합니다, 아시겠죠?

00:11:56.845 --> 00:11:58.365  
그 말씀을 꼭 드릴게요.

00:11:58.465 --> 00:12:04.224  
그러면 오늘 나오는 내용은 2017년도  
9월 모의평가에 나온 내용인데요.

00:12:04.324 --> 00:12:06.217  
새로운 유형입니다.

00:12:06.317 --> 00:12:10.468  
뒤에 보시면 문학이론이 나오고요.

00:12:10.568 --> 00:12:13.009  
그다음에 김현감호라고  
하는 소설이 있고,

00:12:13.109 --> 00:12:16.240  
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 
소설이 있습니다.

00:12:16.340 --> 00:12:19.763  
비문학이 나오고,  
그다음에 문제가 나오고.

00:12:19.863 --> 00:12:21.810  
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길죠?

00:12:21.910 --> 00:12:23.310  
1번부터 6번까지 겁니다.

00:12:23.410 --> 00:12:25.707  
문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.

00:12:25.807 --> 00:12:27.689  
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 
확인해 보겠습니다.

00:12:27.789 --> 00:12:31.612  
1번, (가)에서 설명한 중국의  
전기와 우리의 전기 소설에 대한

00:12:31.712 --> 00:12:33.652  
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2:33.752 --> 00:12:36.494  
비문학 내용 일치 문제하고



똑같은 유형입니다.

00:12:36.594 --> 00:12:39.377

이런 문제는 반드시  
한 문제가 나오죠.

00:12:39.477 --> 00:12:42.970

그다음에 2번을 보면 (가)를 바탕으로  
(나), (다)의 인물에 대해

00:12:43.070 --> 00:12:45.017

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2:45.117 --> 00:12:47.029

(가)의 비문학 내용을  
이해했잖아요.

00:12:47.129 --> 00:12:51.737

그리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 
(나) 작품과 (다) 작품을

00:12:51.837 --> 00:12:53.633

한번 감상해 보라 이런 건데.

00:12:53.733 --> 00:12:57.590

보기가 좀 더 길어졌다고  
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

00:12:57.690 --> 00:13:01.013

우리 보통 보기가 나오고 그걸  
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잖아요.

00:13:01.113 --> 00:13:04.903

보기가 엄청나게 하나의 지문처럼  
길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13:05.003 --> 00:13:08.073

(나)와 [A]를 비교한  
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3:08.173 --> 00:13:11.479

(나)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[A]  
부분 내용하고 비교해 보라.

00:13:11.579 --> 00:13:13.832

내용 일치를 비교하는 겁니다.

00:13:13.932 --> 00:13:16.990

㉠을 참고해서 (나)를 이해한  
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3:17.090 --> 00:13:18.143

㉠이 뭐죠?

00:13:18.243 --> 00:13:23.628

㉠은 (가)에 나오는 소설  
이론을 바탕으로 해서

00:13:23.728 --> 00:13:27.053

(나) 작품을 한번 이해해  
보라 이런 겁니다.

00:13:27.153 --> 00:13:31.528

그다음에 5번을 보면  
(다)에 나타난 주인공들의

00:13:31.628 --> 00:13:33.757

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 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3:33.857 --> 00:13:36.423

(다) 작품은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 
사랑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

00:13:36.523 --> 00:13:38.159

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.

00:13:38.259 --> 00:13:41.860

6번은 (다)에 구현된 ㉠에 대한  
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3:41.960 --> 00:13:43.692

㉠이 뭐가 있습니까?

00:13:43.792 --> 00:13:47.637

안 보이네요, ㉠이 어디 있습니까?

00:13:47.737 --> 00:13:50.809

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.

00:13:50.909 --> 00:13:53.487

여기 있다, 다양한 소설적인  
면모를 보였다고 했는데.

00:13:53.587 --> 00:13:55.484

그 다양한 소설적인 면모가 뭐냐?

00:13:55.584 --> 00:13:56.814

이런 걸 찾는 거죠.

00:13:56.914 --> 00:14:00.123

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1, 2,  
3, 4, 5, 6번까지의 문제가

00:14:00.223 --> 00:14:04.026

상당히 길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 
당황했을 만한 문제예요.

00:14:04.126 --> 00:14:09.180

또 비문학까지 같이 문학  
이론이라고 얘기하지만,

00:14:09.280 --> 00:14:12.394

비문학처럼 쓰여 있는 거니까  
비문학처럼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

00:14:12.494 --> 00:14:13.937

조금 어렵죠.

00:14:14.037 --> 00:14:16.557

내용을 한번 가보면서 우선  
정리를 한번 해보면서

00:14:16.657 --> 00:14:18.725

(나) 작품과 (다)  
작품을 보겠습니다.

00:14:18.825 --> 00:14:21.557

우리나라 전기 소설은,  
전기 소설이 뭐예요?

00:14:21.657 --> 00:14:25.472

기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  
전기 소설이라고 얘기하죠.

00:14:25.572 --> 00:14:28.001

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설화 등

00:14:28.101 --> 00:14:31.268

다양한 서사 갈래의  
영향을 받아 성립했다.

00:14:31.368 --> 00:14:35.511

우리나라 전기 소설은, 그러면  
(나) 작품과 (다) 작품은

00:14:35.611 --> 00:14:43.267

전기 소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 
점작할 수 있을 겁니다.

00:14:43.367 --> 00:14:48.853

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 
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.

00:14:48.953 --> 00:14:52.134

기이한 사건이 들어가 있는  
거죠, 기이한 사건.

00:14:52.234 --> 00:14:54.680

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 
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

00:14:54.780 --> 00:14:58.574

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 
관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.

00:14:58.674 --> 00:15:02.516

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 
위한 소재로만 쓰여서

00:15:02.616 --> 00:15:07.760

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,  
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고 얘기했죠.

00:15:07.860 --> 00:15:09.370

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?

00:15:09.470 --> 00:15:11.012

여기다 쓰겠습니다.

00:15:11.112 --> 00:15:15.595

중국의 전기의 특징이  
세 가지가 나왔어요.

00:15:15.695 --> 00:15:23.423  
세 가지가 뭐냐면, 첫 번째는 뭐냐면  
기이한 사건이다, 이렇게 얘기했구요.

00:15:23.523 --> 00:15:25.845  
기이한 사건이 나왔고.

00:15:25.945 --> 00:15:29.013  
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설  
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다.

00:15:29.113 --> 00:15:30.363  
유기적이지는 않다.

00:15:30.463 --> 00:15:35.857  
그다음에 결말도 다양했다  
그러니까 다양한 결말이다.

00:15:35.957 --> 00:15:38.673  
이렇게 얘기했어요, 다양한  
결말이 나타난다.

00:15:38.773 --> 00:15:44.830  
이게 바로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 
우리나라 전기 소설에 영향을 준 거죠.

00:15:44.930 --> 00:15:47.567  
우리나라 전기 소설의 특징이  
뭔가 나올 거잖아요.

00:15:47.667 --> 00:15:49.696  
이게 바로 이제 비문학  
읽는 방법이에요.

00:15:49.796 --> 00:15:51.705  
정리가 되어야죠.

00:15:51.805 --> 00:15:53.222  
그다음 볼까요?

00:15:53.322 --> 00:15:57.208  
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  
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

00:15:57.308 --> 00:16:02.156  
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 
동기에 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.

00:16:02.256 --> 00:16:04.469  
기이한 사건은 유기적으로 짜였다.

00:16:04.569 --> 00:16:08.148  
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 
놓인 전기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

00:16:08.248 --> 00:16:11.773  
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 
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,

00:16:11.873 --> 00:16:14.972

결국은 비극적 종결을  
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.

00:16:15.072 --> 00:16:20.024  
즉, 다시 말하면 비극적 종결, 기이한  
사건, 비극적 종결 이런 거죠.

00:16:20.124 --> 00:16:23.573  
이처럼 우리의 전기 소설은 중국  
전기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

00:16:23.673 --> 00:16:27.268  
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 
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

00:16:27.368 --> 00:16:30.007  
독자성을 보인다고 얘기했어요.

00:16:30.107 --> 00:16:33.729  
이쪽으로 다시 와서 우리나라  
전기는 뭐라고 얘기했고?

00:16:33.829 --> 00:16:37.417  
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이하다,  
기이한 사건 똑같고요.

00:16:37.517 --> 00:16:39.435  
그다음에 유기적으로 짜였다.

00:16:39.535 --> 00:16:41.932  
유기적이라고 하는 게 다르네요.

00:16:42.032 --> 00:16:43.141  
위에 거랑 좀 다르죠?

00:16:43.241 --> 00:16:44.283  
유기적이다.

00:16:44.383 --> 00:16:48.690  
그런데 비극적인 종결이라고  
하는 것이 위에 나오는

00:16:48.790 --> 00:16:50.267  
다양한 결말과 좀 다르다.

00:16:50.367 --> 00:16:51.906  
이렇게 비교가 되는  
거잖아요, 그렇죠?

00:16:52.006 --> 00:16:55.920  
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소설을 여기에  
바탕을 두고 이제 분석해야죠.

00:16:56.020 --> 00:16:59.941  
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전기 소설은  
중국 전기의 영향도 받았지만,

00:17:00.041 --> 00:17:03.541  
설화에도 영향받았다고 했으니까 설화에  
대한 내용이 뭔가 나올 겁니다.

00:17:03.641 --> 00:17:04.901  
가볼까요?

00:17:05.001 --> 00:17:14.631  
우리 전기 소설의 성립에는 민담과  
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끼쳤다.

00:17:14.731 --> 00:17:19.518  
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 
작가의 역량이 발휘되었고,

00:17:19.618 --> 00:17:21.763  
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 
인물이 등장했다.

00:17:21.863 --> 00:17:23.400  
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했다.

00:17:23.500 --> 00:17:26.382  
전기 소설의 갈래적 성격을  
드러내고 있는데.

00:17:26.482 --> 00:17:32.162  
전기 소설 주인공의  
특질은 다음과 같다.

00:17:32.262 --> 00:17:35.122  
첫째는 외로운 인물이에요,  
외로운 인물.

00:17:35.222 --> 00:17:38.013  
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 
존재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

00:17:38.113 --> 00:17:41.764  
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고, 외로운  
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

00:17:41.864 --> 00:17:45.256  
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 
넘어선 사랑을 하거나.

00:17:45.356 --> 00:17:47.917  
그러면 온갖 금기를  
넘어선 사랑을 하거나,

00:17:48.017 --> 00:17:52.308  
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(나) 작품이나  
(다)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

00:17:52.408 --> 00:17:55.685  
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 
걸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.

00:17:55.785 --> 00:17:58.901  
그래서 (가)를 바탕으로 (나),  
(다) 작품을 이해해라,

00:17:59.001 --> 00:18:00.780  
이런 문제가 나올  
수밖에 없는 거죠.

00:18:00.880 --> 00:18:03.910

용궁과 같은 이계에 가기를  
주저하지 않는다.

00:18:04.010 --> 00:18:04.963

이계는 뭐야?

00:18:05.063 --> 00:18:06.875

다른 세계에 가기를  
주저하지 않는다.

00:18:06.975 --> 00:18:10.109

외로움이다, 이런 거야.

00:18:10.209 --> 00:18:11.679

그다음에 둘째는 내면성이다.

00:18:11.779 --> 00:18:14.892

첫 번째 외로움이고, 인물의  
성격 여기에 쓸까요?

00:18:14.992 --> 00:18:17.611

인물은 외로움이다.

00:18:17.711 --> 00:18:21.954

또 하나는 내면성이다, 이렇게  
정리가 좀 되셔야겠죠.

00:18:22.054 --> 00:18:25.750

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 
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

00:18:25.850 --> 00:18:29.375

시를 자주 짓고, 시를 통해  
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

00:18:29.475 --> 00:18:33.038

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게  
바로 두 번째, 내면성입니다.

00:18:33.138 --> 00:18:36.761

셋째는 소극성이다,  
소극적이래요, 소극적이다.

00:18:36.861 --> 00:18:40.964

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 
존재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기

00:18:41.064 --> 00:18:44.386

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 
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.

00:18:44.486 --> 00:18:46.584

남자주인공은 적극적  
저항을 안 해요.

00:18:46.684 --> 00:18:50.747

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에 등지는  
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

00:18:50.847 --> 00:18:55.487  
폐쇄성을 통해서 모순된 현실에 대해  
비극적 인식을 보여줄 뿐이다.

00:18:55.587 --> 00:18:58.446  
이게 바로 이제 소설의  
주인공의 세 가지 성격이에요.

00:18:58.546 --> 00:19:01.777  
외로움, 내면성, 소극적이다  
이렇게 세 가지죠.

00:19:01.877 --> 00:19:05.636  
이처럼 전기 소설의 주인공은 서사  
문학에서 새로운 인물이었다.

00:19:05.736 --> 00:19:09.074  
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 
설화로부터 분기되어서

00:19:09.174 --> 00:19:11.938  
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,  
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

00:19:12.038 --> 00:19:15.854  
전기 소설로 분류되었다고  
얘기했습니다.

00:19:15.954 --> 00:19:17.400  
이쪽으로 잠깐 오실까요?

00:19:17.500 --> 00:19:21.380  
우리나라 전기는 그러면  
설화의 영향을 받았는데.

00:19:21.480 --> 00:19:30.193  
설화에는 다양한 인물이 없었지만,  
우리나라 전기에 영향을 준 건,

00:19:30.293 --> 00:19:34.344  
우리나라 설화겠지만, 영향을 받아서  
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한다,

00:19:34.444 --> 00:19:35.418  
이렇게 얘기했고.

00:19:35.518 --> 00:19:38.740  
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외로움,  
내면성, 소극적인 인물들이다.

00:19:38.840 --> 00:19:42.950  
금기에 처했을 때 뭔가 극복하려고  
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니 애들아?

00:19:43.050 --> 00:19:46.272  
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 
않는다, 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19:46.372 --> 00:19:48.290  
전기 소설로 구분되었다.



00:19:48.390 --> 00:19:54.341

물론 전기 소설의 정립은  
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

00:19:54.441 --> 00:19:57.480

조신, 김현감호, (나)  
작품이 김현감호잖아요.

00:19:57.580 --> 00:20:02.593

최치원 등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 
있지만, 설화와 전기 소설 중에서

00:20:02.693 --> 00:20:06.747

어느 한쪽만으로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 
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.

00:20:06.847 --> 00:20:10.768

즉, 다시 말하면 설화인 것 같기도  
하고, 전기 소설인 것 같기도 하다.

00:20:10.868 --> 00:20:12.744

이게 바로 (나) 작품이죠.

00:20:12.844 --> 00:20:16.189

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 
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

00:20:16.289 --> 00:20:18.708

전기 소설의 성격을  
지니고는 있어요.

00:20:18.808 --> 00:20:22.217

그렇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써  
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

00:20:22.317 --> 00:20:24.738

전설의 성격도 띠고 있는 거죠.

00:20:24.838 --> 00:20:27.877

그러니까 전설의 성격과 전기 소설의  
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게

00:20:27.977 --> 00:20:29.809

김현감호입니다.

00:20:29.909 --> 00:20:33.548

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 
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

00:20:33.648 --> 00:20:35.432

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

00:20:35.532 --> 00:20:38.083

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 
다루어지고요.

00:20:38.183 --> 00:20:41.859

가령 김현감호는,  
설명 다 나옵니다.

00:20:41.959 --> 00:20:43.762

밑에 나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.

00:20:43.862 --> 00:20:47.977

벼슬에 대한 김현의  
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

00:20:48.077 --> 00:20:50.886

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.

00:20:50.986 --> 00:20:52.328

김현감호가 그런 것 같죠?

00:20:52.428 --> 00:20:54.796

감동하다, 호, 호랑이.  
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?

00:20:54.896 --> 00:20:56.486

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.

00:20:56.586 --> 00:20:58.213

줄거리가 나와 있어요, 여러분.

00:20:58.313 --> 00:21:03.258

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, 김현이  
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1:03.358 --> 00:21:04.915

줄거리가 다 나왔죠.

00:21:05.015 --> 00:21:09.181

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 
전지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입니다,

00:21:09.281 --> 00:21:10.482

(나) 작품은.

00:21:10.582 --> 00:21:13.701

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 
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

00:21:13.801 --> 00:21:16.503

현실에 부딪히고  
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

00:21:16.603 --> 00:21:18.745

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집니다.

00:21:18.845 --> 00:21:20.426

가령 이생규장전, 뒤에 나오죠.

00:21:20.526 --> 00:21:22.509

뒤에 (다) 작품입니다.

00:21:22.609 --> 00:21:25.670

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 
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

00:21:25.770 --> 00:21:29.666

다시 결연하지만, 결연한다는  
것은 인연이 맺어지는 거야.

00:21:29.766 --> 00:21:33.396  
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한다는  
얘기는 인연이 다시 맺어지는 거죠.

00:21:33.496 --> 00:21:36.438  
결국 비극적으로  
종결되는 이야기이다.

00:21:36.538 --> 00:21:41.089  
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서  
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

00:21:41.189 --> 00:21:42.755  
형상화한 것이다.

00:21:42.855 --> 00:21:47.580  
전기 소설은 금오신화를  
통해서 소설사에 안착했고,

00:21:47.680 --> 00:21:50.004  
이생규장전이 금오신화의  
한 부분이거든요.

00:21:50.104 --> 00:21:54.340  
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 
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드러냈다.

00:21:54.440 --> 00:21:56.018  
현실 문제를 드러내는 거였죠.

00:21:56.118 --> 00:21:58.858  
그러니까 ㉔에 대한 내용이  
문제로 나와 있더라고요.

00:21:58.958 --> 00:22:00.615  
그리고 이는 후대로 계승되었다.

00:22:00.715 --> 00:22:05.759  
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 
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로.

00:22:05.859 --> 00:22:07.651  
몽유록은 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.

00:22:07.751 --> 00:22:09.821  
이계는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.

00:22:09.921 --> 00:22:13.560  
천상 세계라든가 아니면 용궁의  
세계라든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.

00:22:13.660 --> 00:22:17.647  
이원적 공간 구도는 적강한 영웅의  
일생을 다룬 영웅 소설로.

00:22:17.747 --> 00:22:21.374  
적강했다는 것은 하늘에서  
내려온 겁니다.

00:22:21.474 --> 00:22:24.739  
적강한 영웅의 일생을 다룬

영웅 소설로 계승되었다.

00:22:24.839 --> 00:22:27.113  
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 
구도도 나타나고요.

00:22:27.213 --> 00:22:31.932  
능동적인 여인상, 애정 교류의  
매개로써의 시의 활용.

00:22:32.032 --> 00:22:33.383  
그러니까 무슨 얘기냐.

00:22:33.483 --> 00:22:35.586  
시를 써서  
서로 주고받는 거죠.

00:22:35.686 --> 00:22:37.429  
애정 소설로 이어졌다.

00:22:37.529 --> 00:22:41.282  
이렇게 보면 전기 소설은 우리나라  
최초의 소설 양식인 것이다.

00:22:41.382 --> 00:22:45.579  
전기 소설에 대한 한 편의  
논문을 본 것 같습니다.

00:22:45.679 --> 00:22:49.012  
내용 정리가 다 되지  
않았을 수도 있어요.

00:22:49.112 --> 00:22:53.405  
그러나 비문학을 읽었을 때처럼  
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

00:22:53.505 --> 00:22:57.167  
나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찾아가면서  
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요.

00:22:57.267 --> 00:23:01.408  
실제로 이 작품은 오랜 시간이  
걸려도 괜찮습니다, 여러분.

00:23:01.508 --> 00:23:03.061  
오랜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.

00:23:03.161 --> 00:23:06.372  
문제 푸는 데 5분 내에 끝내야  
된다, 이런 거 없어요.

00:23:06.472 --> 00:23:08.231  
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00:23:08.331 --> 00:23:10.407  
그러면 김현감호라고 하는 작품.

00:23:10.507 --> 00:23:13.753  
아까 감동했다, 부처가 선물  
주고, 호랑이가 감동했다,

00:23:13.853 --> 00:23:15.213

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.

00:23:15.313 --> 00:23:16.881

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

00:23:16.981 --> 00:23:18.769

가볼게요.

00:23:18.869 --> 00:23:24.102

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 
사قم은 인륜의 도리지만,

00:23:24.202 --> 00:23:27.582

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,  
다른 종류와 사귀는 것은.

00:23:27.682 --> 00:23:28.914

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

00:23:29.014 --> 00:23:30.817

대개 정상이 아닙니다.

00:23:30.917 --> 00:23:34.789

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 
천행이라고 할 것인데,

00:23:34.889 --> 00:23:38.744

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,  
배필은 결혼할 배필이잖아요.

00:23:38.844 --> 00:23:43.217

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 
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.

00:23:43.317 --> 00:23:46.503

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 
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.

00:23:46.603 --> 00:23:49.564

뭔가 이런 상황인가 봐, 이런  
고민이 되는 상황인가 봐요.

00:23:49.664 --> 00:23:51.337

처녀가 말하기를.

00:23:51.437 --> 00:23:52.947

처녀가 그 배필인가 봐.

00:23:53.047 --> 00:23:55.199

뭐라고 했냐면 내가  
너의 죽음을 팔아서

00:23:55.299 --> 00:23:56.792

어떻게 벼슬을 바랄 수 있겠느냐.

00:23:56.892 --> 00:23:58.313

이렇게 배필, 처녀한테 말했어요.

00:23:58.413 --> 00:24:01.476

그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

그런 말 마십시오.

00:24:01.576 --> 00:24:05.013  
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 
천명입니다, 하늘의 명령입니다.

00:24:05.113 --> 00:24:06.072  
어쩔 수 없어요.

00:24:06.172 --> 00:24:07.517  
또한 저의 소원입니다.

00:24:07.617 --> 00:24:08.598  
제 소원이예요.

00:24:08.698 --> 00:24:13.285  
낭군의 경사고 우리 일족의,  
우리 가문의 복이고,

00:24:13.385 --> 00:24:15.291  
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.

00:24:15.391 --> 00:24:18.704  
한 번 죽어 다섯 이로우이  
갖춰지니까 어떻게 그것을

00:24:18.804 --> 00:24:19.803  
어길 수 있겠습니까?

00:24:19.903 --> 00:24:21.665  
제가 죽어도 괜찮습니다,  
이런 얘기에요.

00:24:21.765 --> 00:24:26.445  
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 
불경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

00:24:26.545 --> 00:24:29.661  
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 
더없이 클 것입니다.

00:24:29.761 --> 00:24:31.156  
저를 죽여주세요.

00:24:31.256 --> 00:24:35.764  
저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께서  
벼슬을 하세요, 이런 뜻입니다.

00:24:35.864 --> 00:24:38.540  
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어요.

00:24:38.640 --> 00:24:41.509  
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, 범이  
도와준다 그랬잖아요, 그렇지요?

00:24:41.609 --> 00:24:46.478  
범이 성안으로 들어왔는데, 매우  
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.

00:24:46.578 --> 00:24:48.941  
원 성왕이, 임금인 것 같죠?

00:24:49.041 --> 00:24:53.425  
원 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범을 잡은  
자에게 벼슬 2급을 주라고 하였다.

00:24:53.525 --> 00:24:54.901  
이 범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?

00:24:55.001 --> 00:24:56.828  
그 처녀가 뭔가 변신한  
것 같지 않아요?

00:24:56.928 --> 00:24:58.225  
아니어도 괜찮고요.

00:24:58.325 --> 00:25:01.930  
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소신이  
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

00:25:02.030 --> 00:25:05.021  
임금이 우선 벼슬을  
주어 그를 격려하였다.

00:25:05.121 --> 00:25:08.324  
김현이 단도를, 짧은 칼을  
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.

00:25:08.424 --> 00:25:12.314  
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 
웃으면서, 처녀였죠?

00:25:12.414 --> 00:25:16.736  
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 
정을 맺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.

00:25:16.836 --> 00:25:21.436  
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 
모두 홍륜사의 간장을 바르고

00:25:21.536 --> 00:25:27.671  
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 
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.

00:25:27.771 --> 00:25:31.935  
그러니까 벼슬을 얻게 해주기  
위해서 범으로 둔갑해서

00:25:32.035 --> 00:25:34.982  
도움을 준 거겠죠.

00:25:35.082 --> 00:25:38.724  
이에 처녀가 김현의 칼을 뽑아  
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

00:25:38.824 --> 00:25:40.068  
곧 범이었다.

00:25:40.168 --> 00:25:45.198  
김현이 숲속에서 나와서 지금 범을  
쉽게 잡았다고 소리쳤어요.

00:25:45.298 --> 00:25:46.923

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았다.

00:25:47.023 --> 00:25:50.457

일러 준 대로 상한 사람들을  
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죠.

00:25:50.557 --> 00:25:51.538

전설 같죠?

00:25:51.638 --> 00:25:54.286

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 
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

00:25:54.386 --> 00:25:56.534

간장을 바르는 건가 봐요.

00:25:56.634 --> 00:25:59.992

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에  
절을 세워 호원사라고,

00:26:00.092 --> 00:26:01.780

호랑이가 소원을 비는 거죠.

00:26:01.880 --> 00:26:06.003

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,  
강의하다 이런 뜻인 것 같죠?

00:26:06.103 --> 00:26:09.336

저승길을 인도하고, 범이 제  
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시켜준

00:26:09.436 --> 00:26:11.443

은혜에 보답하였다.

00:26:11.543 --> 00:26:13.022

전설인 것 같죠?

00:26:13.122 --> 00:26:17.954

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나면  
문제 1번 보고, 1번 문제 풀고,

00:26:18.054 --> 00:26:20.966

2번 문제 풀고, 이렇게  
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.

00:26:21.066 --> 00:26:23.065

3번 문제 풀고 왔다  
갔다 해야 되는데.

00:26:23.165 --> 00:26:26.180

저는 전체 이야기를 보고  
나서 바로 하겠습니다.

00:26:26.280 --> 00:26:30.581

그다음에 앞에 이제 김현감호라고  
하는 소설의 내용은

00:26:30.681 --> 00:26:32.644

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셨죠?



00:26:32.744 --> 00:26:33.937  
이 생규장전입니다.

00:26:34.037 --> 00:26:38.055  
이 생규장전은 여러분,  
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

00:26:38.155 --> 00:26:42.204  
이 생규장전은 배경 지식으로  
풀면 안 되겠지만,

00:26:42.304 --> 00:26:47.585  
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 
이별했다, 전쟁으로 이별했다가

00:26:47.685 --> 00:26:49.622  
다시 기이한 방식으로 결연했다.

00:26:49.722 --> 00:26:51.993  
다시 인연이 맺어졌다,  
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.

00:26:52.093 --> 00:26:53.890  
그 내용을 좀 확인합시다.

00:26:53.990 --> 00:26:56.848  
장차 백년해로의 낙을,  
백년해로는 부부가

00:26:56.948 --> 00:26:58.890  
평생을 누리는 걸  
백년해로라고 하죠.

00:26:58.990 --> 00:27:02.826  
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 
어찌 황액을 만나서,

00:27:02.926 --> 00:27:07.730  
안 좋은 일을 만나서 구렁에  
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?

00:27:07.830 --> 00:27:10.966  
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 
잃지는 않았으나, 전쟁입니다.

00:27:11.066 --> 00:27:15.764  
전쟁 중에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 
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니다.

00:27:15.864 --> 00:27:16.845  
죽었어요.

00:27:16.945 --> 00:27:19.362  
절개는 중하고, 지조  
절개를 지키는 거죠.

00:27:19.462 --> 00:27:22.485  
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 
들판에 던져졌으나

00:27:22.585 --> 00:27:24.372

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.

00:27:24.472 --> 00:27:27.722

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 
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?

00:27:27.822 --> 00:27:31.785

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 
헤어진 뒤 속절없이

00:27:31.885 --> 00:27:33.902

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.

00:27:34.002 --> 00:27:39.149

그러니까 이별했고, 그다음에  
전쟁으로 인해서 이별했고,

00:27:39.249 --> 00:27:42.828

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 
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.

00:27:42.928 --> 00:27:47.135

이제 저의 환신은, 돌아온 거예요,  
저승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.

00:27:47.235 --> 00:27:49.618

이게 기이한 방식으로 결연한 거죠.

00:27:49.718 --> 00:27:52.506

이제 저의 환신은 이승에  
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어

00:27:52.606 --> 00:27:55.728

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 
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

00:27:55.828 --> 00:27:57.419

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?

00:27:57.519 --> 00:27:58.732

제가 다시 돌아왔잖아요.

00:27:58.832 --> 00:28:00.885

다시 인연 맺는 거  
어때요라고 물어본 거죠.

00:28:00.985 --> 00:28:02.872

이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

00:28:02.972 --> 00:28:06.268

그것이 원래 나의  
소원이오라고 대답했다.

00:28:06.368 --> 00:28:09.441

둘은 말을 주고받았다.

00:28:09.541 --> 00:28:11.901

이생은 모든 가산은 어찌 되었소?

00:28:12.001 --> 00:28:14.703

이놈 좀 웃겨, 재산부터

얘기하는 게, 그렇지?

00:28:14.803 --> 00:28:18.055

자산은 어찌되었소라고  
물어봤더니 하나도 잃지 않고

00:28:18.155 --> 00:28:19.910

어떤 골짜기에다 묻어 두었습니다.

00:28:20.010 --> 00:28:21.995

그럼 양가 부모님의  
유골은 어찌 되었소?

00:28:22.095 --> 00:28:24.717

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 
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.

00:28:24.817 --> 00:28:28.295

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취침을  
하니 기쁜 정은 옛날과

00:28:28.395 --> 00:28:29.706

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.

00:28:29.806 --> 00:28:32.508

이튿날 부부는 가산을  
묻어 둔 곳을 찾아갔다.

00:28:32.608 --> 00:28:33.669

재산 먼저 찾았어.

00:28:33.769 --> 00:28:34.765

좀 그렇다?

00:28:34.865 --> 00:28:37.749

그곳에는 금은 몇 덩이와  
약간의 재물이 있었다.

00:28:37.849 --> 00:28:41.536

그들은 양가 부모의 유골을  
거두고 금은, 재물을 팔아서

00:28:41.636 --> 00:28:44.890

각각 오관산 기슭에  
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

00:28:44.990 --> 00:28:48.465

제사를 드려 모든 예를 다 마쳤다.

00:28:48.565 --> 00:28:50.847

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 
않고 최낭과 함께.

00:28:50.947 --> 00:28:53.858

최낭이 낭자 할 때 그 낭자인데요.

00:28:53.958 --> 00:28:55.584

최 여인, 이런 뜻입니다.

00:28:55.684 --> 00:28:58.924

최낭과 함께 살았고, 피란 갔던

노복들도 다시 찾아왔어요.

00:28:59.024 --> 00:29:02.880

이생은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 
잊은 채 친척의 길흉사에도

00:29:02.980 --> 00:29:04.642

가보지 않고, 두문불출한 거죠.

00:29:04.742 --> 00:29:05.911

옛날에 모의고사 나왔어요.

00:29:06.011 --> 00:29:10.274

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 
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어요.

00:29:10.374 --> 00:29:12.247

어느덧 몇 년이 지난  
어느 날 밤에 최낭은

00:29:12.347 --> 00:29:15.579

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, 세상일은  
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.

00:29:15.679 --> 00:29:18.911

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 
닥쳐왔습니다라고 오열하였다.

00:29:19.011 --> 00:29:22.084

세 번째 이별이 나타나는  
거예요, 이제.

00:29:22.184 --> 00:29:30.767

세 번째 이별은 뭐냐면 이 여인이  
저승의 명부에 자기 이름이

00:29:30.867 --> 00:29:33.962

올랐으니까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,  
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.

00:29:34.062 --> 00:29:36.222

나도 부인과 함께  
황천으로 갔으면 하오.

00:29:36.322 --> 00:29:38.434

어찌 무료로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.

00:29:38.534 --> 00:29:42.379

지난번에 난리를 겪어 친척들과 노복들이  
뿔뿔이 흩어지고, 전쟁 중에.

00:29:42.479 --> 00:29:46.166

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 
때, 부인이 아니었더라면

00:29:46.266 --> 00:29:47.840

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.

00:29:47.940 --> 00:29:50.377

효도를 당신 때문에 내가 할  
수 있었어, 고마워요.

00:29:50.477 --> 00:29:53.627  
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 
계실 때에 예의를 다하여 섬기고

00:29:53.727 --> 00:29:55.854  
돌아가신 뒤에 예의를 다하여  
장례를 지낸다고 했는데.

00:29:55.954 --> 00:29:58.029  
부인이 이것을 실천했어.

00:29:58.129 --> 00:30:00.114  
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효하고.

00:30:00.214 --> 00:30:02.683  
순효, 순하고 효성스럽다  
이런 뜻이겠죠.

00:30:02.783 --> 00:30:05.181  
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 
감격해 마지않았으며

00:30:05.281 --> 00:30:07.319  
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.

00:30:07.419 --> 00:30:10.198  
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 
후에 같이 떠날 수 없었겠소라고

00:30:10.298 --> 00:30:14.218  
얘기했더니 최낭은 낭군의  
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

00:30:14.318 --> 00:30:17.560  
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, 명부는  
출석부랑 똑같은 거예요.

00:30:17.660 --> 00:30:20.454  
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 
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.

00:30:20.554 --> 00:30:25.091  
만일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 
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고,

00:30:25.191 --> 00:30:28.632  
죄가 저에게만이 아니라  
낭군님께도 미칠 것입니다.

00:30:28.732 --> 00:30:31.371  
그러니까 제가 당신 때문에  
떠날 수밖에 없어요.

00:30:31.471 --> 00:30:33.435  
당신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 있어요.

00:30:33.535 --> 00:30:37.547  
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에  
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

00:30:37.647 --> 00:30:39.933

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 
맞지 않게 해주십시오.

00:30:40.033 --> 00:30:41.301

다만 마지막 소원입니다.

00:30:41.401 --> 00:30:43.813

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 
눈물을 흘렸다.

00:30:43.913 --> 00:30:45.494

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.

00:30:45.594 --> 00:30:48.253

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 
마침내 자취를 감췄다.

00:30:48.353 --> 00:30:50.031

마지막 이별을 한 거예요.

00:30:50.131 --> 00:30:52.161

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 
그녀의 시신을 거두어

00:30:52.261 --> 00:30:54.329

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.

00:30:54.429 --> 00:30:57.695

그 후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 
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

00:30:57.795 --> 00:30:59.878

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.

00:30:59.978 --> 00:31:03.271

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, 마지막에  
평가도 나타난다, 이 소설은.

00:31:03.371 --> 00:31:06.012

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 
그들의 절개를

00:31:06.112 --> 00:31:10.785

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 
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.

00:31:10.885 --> 00:31:12.293

됐니?

00:31:12.393 --> 00:31:13.435

어휘 풀이 됐고요.

00:31:13.535 --> 00:31:15.066

지문 소화제 보겠습니다.

00:31:15.166 --> 00:31:19.385

우리나라의 전기 소설은 중국의 전기와  
창작 동기가 똑같지는 않죠.

00:31:19.485 --> 00:31:20.749

똑같지는 않습니다, X고요.

00:31:20.849 --> 00:31:24.693  
(나)는 전설과 전기 소설의 특징을  
모두 지닌다고 얘기했습니다.

00:31:24.793 --> 00:31:26.112  
그러니까 O고.

00:31:26.212 --> 00:31:28.111  
(다)는 중국의 전기와  
달리 결말이 비극적이다.

00:31:28.211 --> 00:31:30.890  
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죠.

00:31:30.990 --> 00:31:32.603  
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31:32.703 --> 00:31:37.493  
앞에 (가)에 나왔던 그 글의 내용을  
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

00:31:37.593 --> 00:31:40.227  
조금 어렵게 느껴질 텐데,  
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31:40.327 --> 00:31:43.506  
(가)에서 설명한 중국의 전기와  
우리의 전기 소설에 대한 이해로

00:31:43.606 --> 00:31:47.530  
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 
골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31:47.630 --> 00:31:51.369  
전기에서 작가는, 현실적  
사건이 무조건 틀렸겠죠.

00:31:51.469 --> 00:31:54.239  
전기 소설이라고 하는 개념  
자체가 틀린 거니까요.

00:31:54.339 --> 00:31:59.547  
전기와 전기 소설의 결말은 모두  
유기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

00:31:59.647 --> 00:32:01.464  
전형성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.

00:32:01.564 --> 00:32:03.468  
중국의 전기는 뭐라 그랬어요?

00:32:03.568 --> 00:32:04.865  
유기적이지 않다 그랬잖아.

00:32:04.965 --> 00:32:06.532  
이쪽으로 와볼까요?

00:32:06.632 --> 00:32:08.890  
여기 보니까 유기적이지

않다고 얘기했죠?

00:32:08.990 --> 00:32:11.226

그러니까 아까 메모해둔 게  
효과가 있었네, 그렇죠?

00:32:11.326 --> 00:32:13.433

정답은 2번도 틀렸네요.

00:32:13.533 --> 00:32:14.606

3번 볼까요?

00:32:14.706 --> 00:32:17.596

전기 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 
글숨씨가 담긴 작품집을

00:32:17.696 --> 00:32:21.098

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 
창작하였다고 되어 있는데.

00:32:21.198 --> 00:32:22.505

이건 봐야겠죠.

00:32:22.605 --> 00:32:25.316

출세 수단 어디 나왔습니까?

00:32:25.416 --> 00:32:33.710

전기 소설은 출세를 위해서, 이제 앞에  
거 보고 할 걸 그랬다, 그렇지?

00:32:33.810 --> 00:32:38.707

다섯 번째 줄 보면 우리의  
전기 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

00:32:38.807 --> 00:32:42.346

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 
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

00:32:42.446 --> 00:32:44.536

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 
위한 게 아니죠.

00:32:44.636 --> 00:32:46.430

전기 소설은 우리나라 거니까.

00:32:46.530 --> 00:32:48.196

다섯 번째에 나왔어요.

00:32:48.296 --> 00:32:51.026

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 
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죠.

00:32:51.126 --> 00:32:53.557

그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 
줄,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

00:32:53.657 --> 00:32:55.436

글숨씨가 담긴 작품집을  
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건

00:32:55.536 --> 00:32:57.653



전기 소설이 아니고 전기겠죠.

00:32:57.753 --> 00:32:59.047  
그래서 틀렸네요.

00:32:59.147 --> 00:33:02.612  
전기는 전기 소설의 영향을  
받은 게 아니죠.

00:33:02.712 --> 00:33:06.413  
전기가 전기 소설에 영향을  
준 거니까 틀렸습니다.

00:33:06.513 --> 00:33:08.602  
전기 소설의 작가는,  
방금 전에 했죠.

00:33:08.702 --> 00:33:11.698  
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 
자신의 삶의 주인공을 통해

00:33:11.798 --> 00:33:13.080  
위로받고자 했다.

00:33:13.180 --> 00:33:16.014  
그게 아까 다섯 번째, 여섯  
번째 줄에 나왔습니다.

00:33:16.114 --> 00:33:18.603  
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

00:33:18.703 --> 00:33:21.633  
이건 이제 비문학 내용  
일치 문제니까 위에 나왔던

00:33:21.733 --> 00:33:26.104  
첫 번째,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 
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.

00:33:26.204 --> 00:33:29.554  
2번, (가)를 바탕으로 해서  
(나)와 (다)의 인물에 대해

00:33:29.654 --> 00:33:32.664  
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 
것을 찾으라고 얘기했네요.

00:33:32.764 --> 00:33:36.562  
1번, (나)의 김현은 배필의  
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죠.

00:33:36.662 --> 00:33:37.907  
나약한 모습이죠.

00:33:38.007 --> 00:33:41.001  
결국은 죽음을 막지 못하고  
여자의 뜻에 따랐잖아요.

00:33:41.101 --> 00:33:42.416  
소극성을 지녔다.

00:33:42.516 --> 00:33:43.958  
아까 소극적, 여기 나왔네?

00:33:44.058 --> 00:33:44.841  
지웠다.

00:33:44.941 --> 00:33:47.045  
소극적이다, 내면적이다  
이런 얘기했었잖아요.

00:33:47.145 --> 00:33:48.335  
소극성을 지닌 인물이다, 맞죠.

00:33:48.435 --> 00:33:52.731  
(나)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 
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,

00:33:52.831 --> 00:33:55.968  
불법은 불교에 대한  
범 이런 뜻입니다.

00:33:56.068 --> 00:33:58.636  
도와달라고 김현에게  
부탁한다는 점에서

00:33:58.736 --> 00:34:01.804  
(나)에서 갈등 해결은 종교적  
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.

00:34:01.904 --> 00:34:04.808  
그렇죠, 불법을 통해서  
해결하는 거니까 적절하겠죠.

00:34:04.908 --> 00:34:09.925  
3번은 (다)의 이생은 최낭의  
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

00:34:10.025 --> 00:34:11.394  
벼슬을 구하지 않는 거죠.

00:34:11.494 --> 00:34:13.004  
폐쇄성이라고 했습니다.

00:34:13.104 --> 00:34:17.498  
폐쇄성이라고 해서 다른 것과 소통을  
하지 않는 거니까 적절하죠.

00:34:17.598 --> 00:34:20.757  
(다)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 
곳이 없어서 기이한 방식으로

00:34:20.857 --> 00:34:23.651  
이생과 인연을 이어가려는 점에서  
외로움을 지닌 인물이다.

00:34:23.751 --> 00:34:29.482  
외로우니까 의탁하는 거고, 함께  
지내려고 하는 거니까 적절하겠죠.

00:34:29.582 --> 00:34:33.266  
(다)의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

않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.

00:34:33.366 --> 00:34:34.564  
자취를 감추잖아요.

00:34:34.664 --> 00:34:38.327  
(다)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 
대등하게 맞서는, 이게 틀렸죠.

00:34:38.427 --> 00:34:42.920  
그렇다고 해서 최낭과 이생이  
개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면

00:34:43.020 --> 00:34:43.974  
절대 안 되겠죠.

00:34:44.074 --> 00:34:45.159  
문제는 상당히 쉬웠네요.

00:34:45.259 --> 00:34:47.196  
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34:47.296 --> 00:34:48.917  
서로 간의 갈등은 없었죠?

00:34:49.017 --> 00:34:50.726  
갈등이 있다고 얘기할  
수도 없죠, 그렇죠?

00:34:50.826 --> 00:34:51.936  
넘어갑니다.

00:34:52.036 --> 00:34:55.291  
(나)와 [A]를 비교한  
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.

00:34:55.391 --> 00:34:57.838  
(나) 작품하고 [A]는  
마지막에 이 여자가

00:34:57.938 --> 00:34:59.774  
떠난다고 얘기했던 그 장면이에요.

00:34:59.874 --> 00:35:01.441  
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.

00:35:01.541 --> 00:35:05.360  
(나)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 
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

00:35:05.460 --> 00:35:07.311  
안타까워하고, 스스로  
희생을 선택했죠.

00:35:07.411 --> 00:35:09.682  
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했습니다.

00:35:09.782 --> 00:35:10.774  
누구를 위해서?

00:35:10.874 --> 00:35:13.410

남군님을 위해서, 사랑하는 남자를  
위해서 스스로 희생했죠.

00:35:13.510 --> 00:35:16.489

[A]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 
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.

00:35:16.589 --> 00:35:18.148

정답은 1번이  
정답이겠네요, 그렇지요?

00:35:18.248 --> 00:35:22.126

(나)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 
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며.

00:35:22.226 --> 00:35:23.470

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다?

00:35:23.570 --> 00:35:25.279

5가지 이로운 일을 얘기했는데.

00:35:25.379 --> 00:35:27.419

저한테도 이익이다,  
이런 내용이 있나요?

00:35:27.519 --> 00:35:33.363

보자, 첫 번째 천명이다, 저의  
소원이다, 남군의 경사다,

00:35:33.463 --> 00:35:35.618

일족의, 복이다, 나라  
사람들의 기쁨이니까

00:35:35.718 --> 00:35:37.733

서로에게 이익이다,  
이런 내용이 없었죠.

00:35:37.833 --> 00:35:42.002

[A]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 
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다.

00:35:42.102 --> 00:35:45.331

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가  
아니라 저승의 법에 따라

00:35:45.431 --> 00:35:48.684

갈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2번  
역시 내용 파악이 틀렸죠.

00:35:48.784 --> 00:35:53.471

3번, (나)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게  
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.

00:35:53.571 --> 00:35:55.315

타인과의 관계에서  
맺힌 한이 아니죠.

00:35:55.415 --> 00:35:57.401

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에  
대해서 한을 풀어달라는 거고.

00:35:57.501 --> 00:36:01.085  
[A]의 여주인공은 생전에 자기에게  
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한다.

00:36:01.185 --> 00:36:02.481  
그건 맞죠.

00:36:02.581 --> 00:36:05.536  
제 유골을 거두어주세요라고  
했으니까 이걸 맞네요.

00:36:05.636 --> 00:36:09.319  
(나)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 
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

00:36:09.419 --> 00:36:10.493  
인정받았다.

00:36:10.593 --> 00:36:12.660  
[A]의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 
부탁을 실현함으로써

00:36:12.760 --> 00:36:14.326  
사회로부터 소외감을 해소한다.

00:36:14.426 --> 00:36:15.720  
이게 밑에 것이 틀렸죠.

00:36:15.820 --> 00:36:17.925  
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 
인정받는다, 왜?

00:36:18.025 --> 00:36:19.537  
사람들 다 고쳐줬잖아요, 그렇지요?

00:36:19.637 --> 00:36:21.595  
그러니까 적절하겠네요, 이거는.

00:36:21.695 --> 00:36:24.932  
(나)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에 회의를  
느끼며 속세를 등진다, 틀렸죠.

00:36:25.032 --> 00:36:26.827  
결국 벼슬을 했잖아요.

00:36:26.927 --> 00:36:30.428  
[A]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의  
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다.

00:36:30.528 --> 00:36:31.771  
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.

00:36:31.871 --> 00:36:37.562  
여기에서는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 
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,

00:36:37.662 --> 00:36:38.627  
이것도 가능하겠죠.

00:36:38.727 --> 00:36:41.735  
무의미하다는 게 사랑하는

여자가 없었으니까

00:36:41.835 --> 00:36:43.491

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 
세상을 떠난다.

00:36:43.591 --> 00:36:45.224

이건 가능하겠네요.

00:36:45.324 --> 00:36:50.500

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.

00:36:50.600 --> 00:36:52.311

앞에서 답이 있었구나, 그렇지?

00:36:52.411 --> 00:36:55.670

4번, ㉠을 참고해서 (나)를 이해한  
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.

00:36:55.770 --> 00:36:56.776

㉠이 뭐죠?

00:36:56.876 --> 00:37:03.563

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 
전능함을 형성화했다고 얘기했습니다.

00:37:03.663 --> 00:37:09.619

부처의 전지전능함을 통해서 (나)  
작품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라,

00:37:09.719 --> 00:37:10.827

이런 뜻이에요.

00:37:10.927 --> 00:37:15.428

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 
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, 그렇지?

00:37:15.528 --> 00:37:19.591

낭군의 경사라고 하면 낭군이 결국  
벼슬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.

00:37:19.691 --> 00:37:23.231

그걸 이제 낭군의 경사라고  
말하는 장면인데.

00:37:23.331 --> 00:37:26.211

김현에 대한 부처의  
응답을 암시한다.

00:37:26.311 --> 00:37:31.012

그렇죠, 부처가 응답을 해서 벼슬길에  
올라가게 한 거니까 적절한 거죠.

00:37:31.112 --> 00:37:34.571

부처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 
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.

00:37:34.671 --> 00:37:37.054

매우 사나운 범이  
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

00:37:37.154 --> 00:37:40.149

김현 개인의 욕망 실현을  
가로막는 현실, 아니죠.

00:37:40.249 --> 00:37:43.067

사나운 범이 사람들을  
해치는 장면 때문에

00:37:43.167 --> 00:37:45.609

결국은 애가 욕망이 실현된  
거잖아요, 그렇지요?

00:37:45.709 --> 00:37:48.645

벼슬 올라가는 욕망이 실현된  
거니까 틀렸죠, 2번은.

00:37:48.745 --> 00:37:50.985

김현이 임금에게 법을 잡을  
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은

00:37:51.085 --> 00:37:54.712

김현과 범 사이의 긴장감이,  
긴장감이 없었죠.

00:37:54.812 --> 00:37:57.442

이 범이 누군지 다  
알았잖아요, 김현은.

00:37:57.542 --> 00:37:59.996

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 
주어 격려하는 장면은

00:38:00.096 --> 00:38:02.717

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 
임금의 의지.

00:38:02.817 --> 00:38:07.836

임금이 부처의 뜻을 계시를 받아서  
애한테 뭔가 벼슬을 주고

00:38:07.936 --> 00:38:09.889

이런 게 아니니까 4번도 틀렸죠.

00:38:09.989 --> 00:38:12.347

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 
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

00:38:12.447 --> 00:38:15.396

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 
감동하는 계기.

00:38:15.496 --> 00:38:19.834

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감동하는 것은,  
김현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.

00:38:19.934 --> 00:38:23.129

이 범이 처녀라고 하는  
것도 짐작했으니까요.

00:38:23.229 --> 00:38:26.230

감동하는 계기를

드러낸다는 게 틀렸죠.

00:38:26.330 --> 00:38:27.522  
5번 볼까요?

00:38:27.622 --> 00:38:30.823  
(다)에 나타난 주인공의 사랑에  
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38:30.923 --> 00:38:35.155  
최낭이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 
하는 것에서, 전쟁이죠.

00:38:35.255 --> 00:38:36.818  
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됐다.

00:38:36.918 --> 00:38:39.921  
횡액을 만나서 그랬으니까  
외부적 요인이다, 맞죠.

00:38:40.021 --> 00:38:43.014  
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 
이별한 자신은 짝 잃은 새,

00:38:43.114 --> 00:38:44.160  
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요.

00:38:44.260 --> 00:38:46.386  
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 
슬픔을 알 수 있다.

00:38:46.486 --> 00:38:48.578  
그렇죠, 짝 잃은 새라고  
표현했으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,

00:38:48.678 --> 00:38:49.742  
자기 자신의 처지를.

00:38:49.842 --> 00:38:52.235  
그러니까 여주인공의 슬픔을  
표현하고 있다 맞죠.

00:38:52.335 --> 00:38:53.383  
3번 볼까요?

00:38:53.483 --> 00:38:55.939  
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 
최낭의 말에 이생이

00:38:56.039 --> 00:38:57.850  
그것이 원래 나의  
소원이라고 대답했어.

00:38:57.950 --> 00:38:59.226  
같이 삼시다라고 얘기했잖아.

00:38:59.326 --> 00:39:02.743  
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녀 주인공,  
이건 쉽지 않아요, 그렇지요?

00:39:02.843 --> 00:39:05.238



최남이 이생에게 세 번  
가약을 맺었건만,

00:39:05.338 --> 00:39:06.876  
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.

00:39:06.976 --> 00:39:07.814  
무슨 얘기야?

00:39:07.914 --> 00:39:10.289  
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 
없다고 얘기하잖아요.

00:39:10.389 --> 00:39:15.763  
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 
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한다.

00:39:15.863 --> 00:39:19.373  
현실에서 좌절된 사랑이라고  
얘기할 수 없죠.

00:39:19.473 --> 00:39:23.494  
여기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 
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

00:39:23.594 --> 00:39:29.117  
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 
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

00:39:29.217 --> 00:39:33.286  
개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 
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.

00:39:33.386 --> 00:39:36.430  
그러니까 사랑을 저승에서  
완성하고자 한다.

00:39:36.530 --> 00:39:37.599  
이것도 역시 틀렸네요.

00:39:37.699 --> 00:39:39.555  
자기 혼자 떠나갈  
수밖에 없는 거니까.

00:39:39.655 --> 00:39:45.303  
저 가니까 따라오세요, 이걸 완성하는  
거지만 밑에 것도 확실하게 틀렸죠.

00:39:45.403 --> 00:39:47.960  
최남이 자신의 죄가 이생에게도  
미칠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

00:39:48.060 --> 00:39:50.784  
안위를 우선시하는 여주인공의  
사랑에 대한 인식, 맞죠.

00:39:50.884 --> 00:39:54.531  
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나타나  
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.

00:39:54.631 --> 00:39:57.447

(다)에 구현된 ㉠에 대한  
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39:57.547 --> 00:39:58.543  
㉠이 뭐였죠?

00:39:58.643 --> 00:40:04.075  
다양한 소설적인 면모가 적절하지 않은  
것을 찾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40:04.175 --> 00:40:08.799  
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 
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.

00:40:08.899 --> 00:40:11.489  
다른 세상 체험했어요, 이생이?

00:40:11.589 --> 00:40:12.719  
아닙니다, 여러분.

00:40:12.819 --> 00:40:15.519  
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 
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.

00:40:15.619 --> 00:40:16.957  
이거는 뭐야?

00:40:17.057 --> 00:40:18.234  
현실이잖아요.

00:40:18.334 --> 00:40:20.581  
그러니까 이계가 아닌  
거예요, 이계가 틀렸죠.

00:40:20.681 --> 00:40:21.973  
다른 세계가 아닌 거죠.

00:40:22.073 --> 00:40:23.129  
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.

00:40:23.229 --> 00:40:27.922  
능동적 여인상은 최낭의 환신이 남은  
인연을 맺자고 제안하는 거예요.

00:40:28.022 --> 00:40:29.308  
여자가 먼저 제안했잖아.

00:40:29.408 --> 00:40:32.586  
그러니까 능동적인 여인상의  
모습이 나타난 거죠.

00:40:32.686 --> 00:40:35.952  
그다음,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 
추구는 이생이 최낭의 환신과

00:40:36.052 --> 00:40:39.422  
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 
누리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죠.

00:40:39.522 --> 00:40:41.897  
왜? 금기에 도전하는 거니까.

00:40:41.997 --> 00:40:48.645

금기라고 하는 게 죽음을  
뛰어넘는 사랑이잖아요.

00:40:48.745 --> 00:40:51.563

그러니까 환신과 다름없이  
기쁜 정을 누리는 거니까

00:40:51.663 --> 00:40:53.791

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 
추구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40:53.891 --> 00:40:57.035

이원적 공간 구도는 최낭의  
환신이 이승에 있음에도

00:40:57.135 --> 00:40:59.870

저승의 법을 따라서 황천으로  
가야 한다는 데에서

00:40:59.970 --> 00:41:01.953

이원적 공간 구도가 나타났습니다.

00:41:02.053 --> 00:41:04.123

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 
활용되는 것은 이생과 최낭이

00:41:04.223 --> 00:41:07.771

시를 지어 주고받는 데에서  
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.

00:41:07.871 --> 00:41:12.522

이게 새로운 문제들은 2학년  
학생들 같은 경우는,

00:41:12.622 --> 00:41:15.095

1, 2학년 학생들 같은  
경우는 좀 어렵습니다,

00:41:15.195 --> 00:41:17.159

이 유형 연습이라고 하는 게.

00:41:17.259 --> 00:41:19.695

문학 이론 나오고 소설도  
상당히 길고 그러니까

00:41:19.795 --> 00:41:23.069

이 흐름을 끈질기게 이렇게  
가져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.

00:41:23.169 --> 00:41:25.883

저도 지금 해설하는 데 한  
30분 정도 걸렸는데.

00:41:25.983 --> 00:41:31.886

여러분도 문제 푸는 것도 쉽지 않게  
빨리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

00:41:31.986 --> 00:41:38.133

연습을 해서 문제 풀 수 있는

방법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

00:41:38.233 --> 00:41:41.609

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 
팁들 있잖아요.

00:41:41.709 --> 00:41:43.916

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라고  
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

00:41:44.016 --> 00:41:47.133

곱셈어 보시고, 확인하시고 문제를  
풀었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

00:41:47.233 --> 00:41:48.645

여러분, 여기까지 할게요.

00:41:48.745 --> 00:41:49.649

다음 시간에 뵈겠습니다.

00:41:49.749 --> 00:41:51.242
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